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꼭 지킬 원칙

시그니처 김현철

1. 무조건 다 푼다.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다.

6월 모의평가는 시험 점수나 등급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다. 수능에 대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정확히 알고, 모르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잣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 본인의 이상한 완벽주의나 탐구가로써의 기질을 뺏내기위해 시험장에서 국어 비문학 탐구 or 빈칸추론 석박사 논문을 적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보인다. 절대 금물! 시험을 몇점 받던지 간에 그 점수가 온전히 나의 실력이어야만 한다. 선생님 저 이 지문에서 50분써서 다른 비문학 지문 못읽었어요 => 자랑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웃지마라. 선생입장에선 어떻게 얘기해줘야할지도 모르겠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모두 '추측'이 으로 상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진다.

2. 듣기에서 확실한 정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독해 문제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마라.

특히, 1번문제, 4번 그림 문제 / 6번 돈계산 문제 / 응답 초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거나 마지막에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로 그런 유형에서는 독해로 넘어가지말고 끝까지 듣는 편이 좋다.

듣기에서 3점 까여도 3점, 빈칸추론 3점 나가도 3점이다. 절대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항에서의 loss가 없어야만 한다.

여기부터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체로 통용되는' 영어 독해에서의 팁이니 그냥 행동양식 정도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3. 대의파악 파트에서는 너무 지엽적인 정보들에 집중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 지문 전체에서 하고싶은 말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개 대의파악에서의 선택지는 지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다. 너무 지엽적인 한 문장의 이야기가 담긴 선택지를 찍으면 틀린다.

4. 최근 의미추론 (21번) 유형에서 단순히 같은말의 반복 (재진술) 유형에서, 빈칸추론처럼 여러 정보를 연결해야지 정답이 나오게끔 하는 고난도 출제들이 많아졌다 (220621, 220921, 221121) 그렇기 때문에 대의파악처럼 단순히 큰 의미만 파악해서는 안 풀릴 수 있으니, 빈칸의 서술형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정보를 꼼꼼히 연결시키자.

5. 어법은 '높은 확률로' (100%라고 안했다 시비걸지마라 —) 준동사 vs 본동사, 관계사, 수일치, 능/수동, 형용사 vs 부사 중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발 어법에 대해서 뭘안다고 as 이런 거 좀 찍지마라.

6. 빈칸추론은

그냥 수업시간에 했던말 복습한번 하고 들어가라. 실전 기출문제는 양치기 & 독해연습 파트니까 6 평전 복습이 의미가 없는데. 각 예제파트에 대한 정리는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여기서 내가 한마디 말 해준다고 풀릴 파트는 아니긴 하다 카카.

7. 글의 순서 파트는 최근에 '내용상 연결' 로 근거를 내는 경우가 많다. 지시사나 접속사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야겠지만, 이를 가지고 낚시를 건 2017학년도 수능 순서문제 등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결국 최근 간접쓰기 (문장삽입, 순서, 무관한 문장) 의 핵심 코드 역시 '독해력'이다.

8. 글의 순서 파트에서 같은 내용인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해보도록 하자. 가령,

김치찌개의 맛의 우수성 (주어진 문장 & C PART 초반)

김치찌개를 과도하게 섭취했을때의 문제점 (C PART 중반이후, 전체 & A PART 초반)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먹는 빈도와 횟수에 대한 실험 (A PART 중반 이후 & BPART 전체)

의 형태처럼 '글의 구획'이 나뉘는 것으로 연결되는게 최근의 트렌드다.

이는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에 '글의 구획을 따질줄 알아야한다'라는 파트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9. 문장삽입 파트는 '단절'이 있는 문항 1개, '단절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 문항 1개가 나올 것이다. 근데 빈칸처럼 최근 문장삽입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한다고 풀 수 있는 파트는 아니긴 하다.

10. 문장삽입이 굉장히 고난도가 된 까닭은 모든 문장에 대한 당위와 논리, 그리고 이해를 다 따질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39번 잠의 역할 지문을 보도록 하자. 그게 최근 트렌드다. ㄹㅏ놈들이다 ㄹㅇ 이럴거면 절대평가 왜시키나 하

(사설문제로는 4월 더프 39번 문제 - soul 나오는 지문 해설 할 때 내가 얘기했다)